

삼성토탈, 구호단체에 1억6000만원 위탁

삼성토탈(대표 손석원)은 유니세프·월드비전 등 국제구호단체들과 함께 빈민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토탈은 연간 1억6000여만원을 구호단체에 위탁해 방글라데시 등에 식수사업·교육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회사 임직원들의 급여 기부를 통해 마련된다.

삼성토탈 노사협의회는 2011년부터 1400여명의 직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급여 0.5%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손석원 삼성토탈 사장은 “나눔에 대한 관심이 우리 이웃, 나아가 전세계 모든 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3/04/11>